

# “일기장 영향 받아 만든 노래 담았어요”

R&B 싱어송라이터 크러쉬(본명 신효섭·27)는 두 번째 정규앨범 ‘프롬 미드나이트 투 선라이즈’ (From Midnight To Sunrise)가 ‘일기장’ 같은 앨범이라고 소개했다. 서울 강남구에서 앨범 발매일인 5일 오전 만난 크러쉬는 ‘자정부터 일출까지’라는 뜻의 이름에서 영감을 받아 아침에 눈을 떠 밤에 잠들 때까지 하루를 시간 순서대로 앨범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앨범 제목과 동명인 노래와 더블 타이틀곡 ‘위드 유’ (With You)와 ‘얼론’ (Alone)에 이어 ‘선셋’ (Sunset), ‘잘자’ (Feat. Zion.T) 까지, 수록 12곡을 차례로 들으면 마치 한 사람의 하루를 돌아보는 듯하다.



R&B 싱어송라이터 크러쉬가 정규앨범 ‘프롬 미드나이트 투 선라이즈’를 발표했다. /연합뉴스

## 크러쉬, 정규앨범 ‘프롬 미드나이트 투 선라이즈’ 시간 순으로 하루 담은 12곡 수록...타이틀 ‘얼론’

“수록곡 모두 일기에서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실제로 제가 3년간 쓴 일기에서 발췌한 내용도 있어요. 그렇게 만들어 냉동실에 보관한 노래들을 다시 꺼내서 작업해 앨범에 담았어요.” 앨범명은 크러쉬가 3년 전 산책을 나섰을 때 경향을 바탕으로 만들었다. 아침과 밤이 공존한 오전 6시, 크러쉬는 당시 본 풍경을 잊을 수가 없었다고 했다.

“동쪽에는 해가 떠 있었고 서쪽은 아직도 캄캄한 밤이었어요. 그 경계에 서서 사색에 잠겼죠. 나는 지금 인생의 어디쯤 와 있는가에 대한 물음표가 생기면서 이 앨범을 만들려고 구상하게 됐어요.” 그 이후 음악에 대한 가치관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꼭 다이내믹하고 힘이 들어가지 않더라도 음악의 잔향이 오래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번 앨범에 수록된 음악 역시 잔잔하게 흘러간다. 특히 타이틀곡 ‘얼론’은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조용히 위로로 전하는 노랫말이 돋보이는 곡이다. “제가 외롭고 아프고 슬플 때, 저를 위로해주고 지탱해주고 치유해준 건 음악이었어요. 그 과정을 겪고 보니 다른 사람들에게 제 음악으로 위로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곡을 만들게 됐죠.”

시인 오취명이 이 노래 작사를 도왔다. 평소 그의 팬이었던 크러쉬가 SNS로 연락해 이를 부탁했다. 친누나인 싱어송라이터 노브(nove)도 작곡에 참여했다. 동료 가수 단(DEAN)이 피쳐링한 ‘웨이크 업’ (Wake Up), 자이언티와 함께 부른 ‘잘자’ 등도 있다. 많은 이들의 손길이 닿았기 때문인지 그는 이번 앨범에 대한 자신감과 애정을 숨기지 않았다. “저는 여태까지 음악을 내면서 단 한 번도 ‘이건 좋은 음악입니다’라고 이야기한 적 없어요. 그런데 이 앨범은 정말 좋은 음악이에요. 한 곡 한 곡 만들면서 감동을 받았어요. 트래 순서대로 정주행 해주시면 좋겠어요.” 30대, 40대의 크러쉬는 어떤 음악을 하게 될까. 그의 답은 의외로 단순했다. “30대가 되고, 40대가 돼도 재밌게 또 즐겁게 하고 싶은 음악을 하는 게 저의 목표예요. 미래에도 꼭 열정을 갖고 음악을 할 수 있는 무지선이 되고 싶어요.”



## NYT 선정 ‘올해 최고의 영화’ 봉준호 ‘기생충’ 3위 올랐다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 (사진)이 뉴욕타임스(NYT) 수석 평가자들이 손꼽은 ‘올해 최고의 영화’ 가운데 3위에 올랐다. NYT의 수석 영화평론가 2인방인 A. O. 스콧과 마블과 다기스는 4일(현지시간) NYT에 각각 자신이 선정한 ‘2019년 최고의 영화’ 명단을 발표하면서 ‘기생충’을 나란히 3위에 올렸다. 1, 2위로는 서로 다른 영화를 지목한 두 평가자가 ‘기생충’에 대해선 의견일치를 이뤄 특히 눈길을 모은다. 스콧은 ‘기생충’에 대해 “세계가 처한 상황에 대해 이보다 더 나은 슬픈 한 영화는 없지만 동시에 영화가 처한 상황이라는 점에서는 이보다 나를 기쁘게 한 영화도 없다”고 호평하면서 ‘히리랜드’와 ‘더 수베리어’ 어 이어 3위로 선정했다. 스콧은 또 총평에서 ‘기생충’과 노아

바움백 감독의 ‘결혼이야기’, 그레타 거윅의 ‘리틀 우먼’을 묶어 “쉽 없는 현재형 시제로 펼쳐나간다”고 평했다. 폴리처상 후보로 5번이나 오른 적이 있는 다기스는 “오늘날 활동하는 가장 위대한 영화제작자 중 한 명이 완벽하게 연출한 영화”라며 봉준호 감독에 공을 돌렸다. 또 “영화가 무엇인지 알고 싶다면 이 영화를 바라”라고 극찬했다. 다기스는 올해 최고의 영화 1위로는 페드로 알모도바르 감독의 ‘페인 앤 글로리’를, 2위로는 마틴 스코세이지 감독의 ‘아이리시맨’을 손꼽았다. 미국의 또 다른 유력 일간 워싱턴포스트(WP)도 ‘기생충’이 아카데미 시상식 91년 역사에서 외국어 영화로 작품상을 차지하는 첫 사례가 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연합뉴스



크러쉬가 정규앨범 ‘프롬 미드나이트 투 선라이즈’ 앨범 표지. /연합뉴스



그림 방탄소년단이 ‘2019 엠넷 아시안 뮤직 어워즈’에서 대상을 뽐내며 9관왕의 영예를 안았다. /연합뉴스

## BTS, ‘MAMA’ 대상도 싹쓸이...9관왕 영예

그림 방탄소년단(BTS)이 ‘2019 엠넷 아시안 뮤직 어워즈’ (2019 MAMA)에서 대상을 ‘싹쓸이’했다. 최근 멜론 뮤직어워드(MMA)에서와 같은 진기록이다. 방탄소년단은 4일 일본 아이치현 나고야에서 열린 ‘2019 MAMA’에서 ‘올해의 아티스트’, ‘올해의 노래’, ‘올해의 앨범’, ‘월드와이드 아이콘 오브 더 이어’ (Worldwide Icon of the Year)까지 대상 4개를 전부 가져갔다. 이 밖에도 ‘베스트 남자 그룹’과 ‘페

이보릿 남자 아티스트’, ‘월드와이드 팬스 초이스’, ‘베스트 댄스 퍼포먼스 남자 그룹’, ‘베스트 뮤직비디오’까지 총 9관왕의 영예를 안았다. 이로써 방탄소년단은 ‘MAMA’에서 대상만 9번을 수상, 엑소(EXO)가 보유한 최다 대상 수상기록(6회)을 단숨에 갈아치우며 왕좌에 올랐다. 대상 4개 트로피를 모두 거머쥔 방탄소년단은 팬클럽 ‘아미’에게 특히 감사의 뜻을 표했다. ‘월드와이드 아이콘 오브 더 이어’

수상 후 RM은 유창한 영어로 “오늘 함께 해 주는 아미 여러분들이 바로 이상을 우리에게 줬다고 생각한다”며 “이상은 팬 여러분들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이홉은 “나는 춤밖에 모르는 소년이었었는데 빅히트에서 방탄소년단 멤버가 되고 친구들에게 배우기도 하며 열심히 하면서 데뷔했다. 여러분께 들려드릴 음악을 만들고 있는데 의미가 큰 상인 것 같다”고 말했다. 마지막 상인 ‘올해의 아티스트’까지

받고 나자 슈가는 “작년 ‘MAMA’ 때 멤버들이 평평 울었다.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생각하며 한해를 달려왔다”며 “당시는 정말 힘들고 세상이 무너질 것 같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웃으면서 다시 생각할 수 있는 순간이 되더라. 1년이 지난 우리는 더 성장했고 더 강해졌다”고 회상했다. 방탄소년단은 지난달 30일 열린 ‘멜론 뮤직어워드(MMA) 2019 이매진 바이’에서 대상 4개를 휩쓸었다. /연합뉴스

## ‘성폭행 혐의’ 강지환, 집행유예 3년

### 법원 “모두 유죄로 인정”

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을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배우 겸 탤런트 강지환씨(본명 조태규·42)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강 씨는 지난 7월 9일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자신의 촬영을 돕는 외주 스태프 여성 2명과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스태프 1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스태프 1명을 성추행한 혐의(준강간 및 준강제추행)로 구속돼 같은 달 25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하고 취업제한명령 5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등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강씨는 최후진술에서 “한순간 큰 실수가 많은 분께 큰 고통을 안겨준 사실이 삶을 포기하고 싶은 정도로 괴롭고 힘들었다”고 밝힌 뒤 “잠깐이라도 그날로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다면 마시던 술잔을 내려놓으라고 저에게 말해주고 싶다. 저 자신이 너무나 밉고 스스로도 용서가 되지 않는다”며 울먹였다. 강씨 측은 결심공판 당일 피해 여성 2명과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재판부에 진상하기를 바라고 피고인이 재판과정에서

서 보여준 여러 다짐이 진심이기 기대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특히 “피고인에게 할 한 가지 당부는 여성이 있기에 사람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잊지 말고 노력해서 밝은 삶을 준비하라”고 주문했다. 강 씨는 지난 7월 9일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자신의 촬영을 돕는 외주 스태프 여성 2명과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스태프 1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스태프 1명을 성추행한 혐의(준강간 및 준강제추행)로 구속돼 같은 달 25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하고 취업제한명령 5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등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강씨는 최후진술에서 “한순간 큰 실수가 많은 분께 큰 고통을 안겨준 사실이 삶을 포기하고 싶은 정도로 괴롭고 힘들었다”고 밝힌 뒤 “잠깐이라도 그날로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다면 마시던 술잔을 내려놓으라고 저에게 말해주고 싶다. 저 자신이 너무나 밉고 스스로도 용서가 되지 않는다”며 울먹였다. 강씨 측은 결심공판 당일 피해 여성 2명과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재판부에 진상하기를 바라고 피고인이 재판과정에서

오늘의 운세		김도완 선생 제공 02-766-1818 www.esazu.com		12월 6일 (음력 11월 10일)	
<p>48년생 부부간에는 신의가 있어야 한다. 60년생 매사에 몸을 사리고 조심하라. 72년생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자신감이다. 84년생 사랑은 움직이는 것이다.</p>	<p>49년생 계약이 성사되고 목표를 달성한다. 61년생 존경을 받고 기분 좋은 일이 생긴다. 73년생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는다. 85년생 때가 왔으니 승부를 걸어라.</p>	<p>50년생 사랑하는 사람을 실망시키지 마라. 62년생 시비가 있으니 주의하라. 74년생 지름길은 빠르지만 험난하다. 86년생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p>	<p>51년생 내 일이 아니면 참견하지 마라. 63년생 공든 탑은 무너지지 않는다. 75년생 희생 없는 성공이란 없다. 87년생 정신을 차리고 현명하게 대응하라.</p>		
<p>52년생 수고는 많지만 도무지 성과가 없다. 64년생 돈 잃고 사람 잃는다. 76년생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곳이 없다. 88년생 좌충우돌하는 날이다.</p>	<p>41년생 하루가 시원하게 뚫린다. 53년생 성급한 결정은 후회를 낳는다. 65년생 술은 아무 것도 해결해 주지 않는다. 77년생 먼저 시작하여 더 많이 준비하라.</p>	<p>42년생 가는 곳마다 행운이 따른다. 54년생 공든 탑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66년생 모든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는다. 78년생 분위기 파악을 잘 해야 한다.</p>	<p>43년생 친구의 꼬임에 넘어가 일탈행위를 하면 안 된다. 55년생 노력하면 된다. 67년생 행운이 따르는 날이다. 79년생 급한 일은 해결되지만 여전히 힘들다.</p>		
<p>44년생 뜻밖의 횡재수가 있겠다. 56년생 손해 보는 일에 미련을 두지 마라. 68년생 바랄 수 없는 시대적 큰 흐름에 역행하지 마라. 80년생 음지가 양지된다.</p>	<p>45년생 지나친 자만은 자신을 망친다. 57년생 재주를 발휘하여 인기를 얻는다. 69년생 몸은 힘들어도 보람은 있다. 81년생 자신 있게 추진하면 승산이 있다.</p>	<p>46년생 전쟁 중에도 대화 창구는 열려 있어야 한다. 58년생 산 너머 산이다. 70년생 다소 구설수는 있지만 별것 아니다. 82년생 빈 수레가 요란한 법이다.</p>	<p>47년생 자금사정이 호전된다. 59년생 과정은 힘들겠지만 결과는 좋겠다. 71년생 노력하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 83년생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p>		